

한기총 두 후보 당선되면 한국교회 위해 봉사하겠다

기호1 김동권 기호2 길자연 두 후보 비전보다 힘겨루기 변론으로 아쉬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한기총)는 차기대권에 나선 두 후보에 대해 거듭된 후보자 자격심사의 난관으로 기존 일정보다 하루가 지나 후보자 공동기자회견이 10 일-14일 한기총 대회홀에서 열렸다. 한 교단에서 두 후보가 출마한 것은 한기총 출범 이래 초유의 상황이면서 김동권 길자연 양 후보는 상가된 듯 스스로의 변론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당선에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한번쯤은 기회를 달라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겠다.

김동권 후보는 “한번쯤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한 것”이라고 인사하고, “신법(개정된 한기총 정관)에 의해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라는 조항에 의해 합동교단 증경총회장 자격으로 나왔다”며 후보자적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경원 목사가 총회 전인 9월 20일 후보 자격조건에 대해 한

기총에 공식 질의한 사실을 교단 총회가 마친 후에야 알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 95회 총회에서의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대는 추천이 필요 없음을 알면서도 행정상 불필요하게 진행된 선거운동의 일화로 봐야한다”며 “알고도 진행된 일련의 상황들이 뭔가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권유에 고사하다가 대표로 나오게 되었으며 당선되면 봉사로 답하겠다.

길자연 후보는 “한기총 대표에 당선되면 봉사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후보 자신이 출마한 것에 대해 “첫째로는 끝까지 주변의 권유에 고사하다가 마지막에 교단 대표로 나오게 됐고, 둘째로는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기총을 다시 한 번 정상세대로 올려놓고 변화 발전해 나가는 사회에서 앞서나가는 신앙기관으로 봉사에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나

오게 됐다”고 포부를 설명했다.

또한 길 목사는 “합동총 총회에서 731명의 총대가 투표해서 492표의 지지로 교단의 한기총 후보로 낙점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가 하면 소송을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과 같으며 자신을 낮추기도 했다.

또한 ‘합동교단의 규칙을 보면 두 가지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왕성교회와 칼빈대학교 이사장은 겸임할 수 없다’는 길 후보의 공격과 ‘자신도 용역을 불렀으면서 2007년 12월 7일 세라본호텔에서 고세진 총장에게 ‘그런 강패들을 기독교교회에 들여야 되겠느냐’는 식의 비난을 한 바 있다’는 주장을 초래했다.

혼합주의의 침범을 경계, 이단해제 문제는 신중해야 두 후보에게 주어진 동일한 질문에 2013년 WCC 한국총회 개최에 관해 기본적으로 합동교단의 입장을 따라 개최를 방해하지는



않되, 한국교회 내에 혼합주의의 침범을 경계해야 하며 개최까지 권고도 협의도 많이 해야 한다는 데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한기총의 이단 해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길 목사는 “한기총은 이단을 해제하는 최종적 단계라기보다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단 문제에 대한 경위는 길 목사 말을 동감”하면서도 “서로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한기총이 성급하게 판단하면 더 불미스러워질 수 있기에 먼저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단 의심 자가 이단이 아니라고 의사를 확실히 했을 때는 해명의 기회를 주고 복귀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생각을 밝혔다.

대표회장 후보 자격 논란으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기자회견이 하루 늦어진 가운데 힘겨루기 열린 기자회견에 한국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양 후보는 발전을 논하고 소신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격 논란의 변론만을 되풀이 해 아쉬움을 남겼다.

길자연 후보는 말미에 한기총이 WCC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회장에게 당선되면 반듯이 조사에 착수하여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를 되새기며

천안함 사건과, 6.25 전쟁 60주년, 한일 합병 100주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 우리는 2010, 경인년 한해를 보내며, 착잡함과 불안함과 가슴 아픔을 절감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때 kairos,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고, 소멸되어 사라져간다. 아픔도 슬픔도 지나갈 뿐이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비극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이나, 시민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가 다짐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살아 남은자의 몫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는 “25시”에서 한 시대 Kairos, 역사 속에 남은 자 remnant로서, 하나님의 때 Kairos를 알리는, 역사의 목격자로서 선지자적 사명mission을 말하고 있다.

2. 예언자는 세 종류가 있다. 새벽에 우는 닭은 어둠속에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새날, 새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빛을 예언하는 새다. 첫 번째 예언자는 희망과 새아침을 예언하는, 희망의 예언자다. 석양 낙락에서 우는 닭새는 조금 있으면 어둠 밤이 올 것이라는 심판과 어둠을 예언하는 새다. 이처럼 두 번째 예언자는 타락과 부패, 전쟁과 악으로 종말을 향해 치달는 한 시대에 심판과 경고를 예언하는 예언자다. 세 번째, 한 밤중에 우는 부엉이는, 파수꾼처럼 홀로 깨어 우는 새다. 술에 취해 향락과 방탕에 취해 쓰러져 잠든 세상, 적들이 쳐들어와 한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며 잠을 깨우는 파수꾼 같은 예언자다. 이 시대,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살고 닭은 성령의 언어로, 잠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때 Kairos, 하나님의 자리 space and situation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 mission을 사는 남은자의 몫이다. 남은 자 remnant의 사명은 세 가지다. 역사의 증언자이면서 종자, 씨앗이고 새로 농사를 지을 농사꾼이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

3. 하나님의 백성에게 송구영신 送舊迎新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의 창조절학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어두운 저녁이 먼저고, 밝은 새아침은 나중이다. 어둠과 죽음도 겹대지 말자. 모든 것은 지나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이라고, 너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씩여져 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땅의 길을 돌고 돌아 압박강에 이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브네엘의 새아침을 맞듯이 목은해를 보내고, 새롭고 소망 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알펜시아서 전진대회

사회단체 대표들 “국가적 과제이며 300만 도민의 염원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적극유치와 참여를 다짐”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와 사회단체의 행보가 내년 7월6일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일이 꼭 7개월을 앞두고 본격 가동됐다. 기독교계가 주축이 돼 구성된 2018동계올림픽유치운동본부(총괄본부장 한창영)는 지난 7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전진대회를 열고 2018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장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회사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면 희망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며 “전 국민모두가 마음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두 번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해 세계 속에 우뚝 솟아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돌태권도시범단의 시범경기와 연후에 퓨전국악단의 축하 연주가 있었다. 아울러 민간 사회단체의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함께 강원도의 유치 불 조성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으로 동사모(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현재 13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를 통해 내년 2월 IOC의 후보도시 현지실사 때까지 전국적인 유치 열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10만 명이 참여하는 ‘강원대합창’을 서울 광화문과 알펜시아 강릉 통일전망대 등에서 공연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지난 2004년부터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 드림프로젝트를 내년 2월에는 42개국 청소년 144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들은 “국가적 과제이며 300만 도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알펜시아서 전진대회

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2시30분부터 진행된 대회예배는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최바울 목사가 3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한 후에 박기중 목사(원주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최병두 목사(대표본부장)가 개회사를, 조원집 목사(예성증경총회장)가 기도, 이애라 찬양율동 선교단의 찬양과 박태희 목사(성락교회 원로)가 “무궁화가 피는 강원도”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김진범 성경경 강보영 최재우 장영기 오승룡 신신복 목사(대표회장)등이 순서를 맡았다.

축성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총회장
성홍경 목사
(송석교회)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지구촌교회)

부총회장
이치각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김한범 목사
(은전교회)

부총회장
장현순 목사
(열린천양교회)

회의록/서기
이기호 목사
(한성교회)

부회의록/서기
유형준 목사
(대명교회)

회계
허선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정일환 목사
(향기로운교회)

간사
이일엽 목사
(성문교회)

간사
전현구 목사
(은누리교회)

간사
전일엽 목사
(동서울교회)

총무
신연환 목사
(성암교회)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총회장 성홍경 목사 외 임원 일동

웨신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 02)835-2606-7, 팩스 02)835-2608

연락처 : 총무 010-8602-3009 서기 010-4166-2307
 홈페이지 http://ws21.kr E-mail:ok@ws21.kr

NCKK 김영주 총무 취임 예배, 시명을 다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및 에큐메니칼 인사들이 김영주 총무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김영주 총무“NCKK는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NCKK는 13일 오후 3시 정동제일교회에서 김영주 총무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영주 총무에 대한 기대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주 목사는 회원교단 뿐 아니라 비회원교단과도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의 발전을 일궈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목사는 “NCKK는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고, 가맹교단은 물론 비가맹교단과도 협력과 연대를 굳건히 해 한국교회가 성장에 걸맞는 성숙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무는 약자를 위한 NCKK의 사명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와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그들 편에 서서 위로하고 돌보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자로 나선 감리교 감독회 장직무대행 김종훈 감독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NCKK는 모든 교회와 함께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기록해야 한다”며 “모든 교회가 연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인 NCKK의 사명을 김영주 총무가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설교 이후에는 일치와 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특히 정의를 위한 기도

자로는 스리랑카 이주민 노동자 인첼라씨가 서,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

각계 각층에서 김영주 총무 격려

이날 예배에는 예장합동, 성결교단 뿐 아니라, 일본 NCC 조쿠

라 케이 부의장, 불교, 천주교 인사들까지 김영주 총무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예장합동 중경총회장 장차남 목사는 “진보의 수장인 NCKK 총무 취임식에 오게 돼 기쁘다”며 “진보와 보수는 피차 상대가 있음으로 존재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유연성과 탄력성, 포용성을 가지고 보수 인사들까지 아울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결교 원광연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운동에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해 주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영남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해와 협력”이라며 “민족끼리, 또 이웃 종교끼리 화해하고 협력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데 주님의 은총이 있길 바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6·15 남북유 명예대표 백낙청 교수, 연세대 정창영 명예교수, 여성단체연합 윤남인산 상임대표, 6월포럼 윤준하 대표가 격려했다.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한 세계경찰선교회(총재 최성규 목사, 대표회장 이성희 목사는)는 세계기독교경찰총회를 후원하기 위해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이다. 세계기독교경찰총회(총회장 김종영 변호사)는 세계경찰들의 영훈구원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결성된 기독교 경찰들의 선교단체이다. 각 국의 전·현직 기독교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12월 한국에서 26개국 대표 60명으로 출발, 회원국 10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륙별로 8개국 고위직 8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원가입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 의결하고 있다.

정기총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며, 대륙별 지역총회는 수시로 개최된다. 또한 한국경찰 50년 선교경험을 모델로 한국과 같은 경찰관들로 구성된 선교회가 전무함을 자각하고, 미결성국 경찰에 선교회가 결성되고 활성화 되도록 지원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세계경찰동료들의 영훈구원을 통해 그 나라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단법인으로 재탄생

영안침례교회서 정기총회 가져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2011년부터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초대 이사장에는 정필도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고문, 수영로교회)가 상임이사에는 최홍준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 호산나교회)가 각각 추대됐다. 지난 11월 25일 영안침례교회(박정근 목사) 센텀예배당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50여명의 성시화 임원목회자들이 모여 15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사단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무총장 안용운 목사는 “시와의 관계 등 대사회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가 필요하다”며 “법인화를 통해 복음화와 사회정화운동 등 성시화운동의 영역과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엔 개정된 정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사의 의무는 강조한 반면 권한은 최소한

으로 축소하여 더 많은 교회와 단체와 협력을 도모기로 했다.

새 이사장으로 추대된 정필도 목사는 “성시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해야 한다. 성시화운동을 통해 도시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며 “매년 해운대에 수십만 명이 모여 부산을 위해 기도하



초대 이사장 정필도 목사

초대 이사장 정필도 목사, 상임이사 최홍준 목사“매년 해운대에서 수십 만명이 모여 기도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 걸 수 있어야”

고 전도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목숨 걸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사 및 감사 명단 이사 15인 이사장 정필도 목사(수영로) 상임이사 최홍준 목사(호산나) 이사 이선유 목사(남성) 조영호 목사(소명) 박홍석 목사(사상) 안용운 목

사(온천) 허원구 목사(산성) 김성곤 목사(종성현) 박정근 목사(영인) 김운성 목사(영도중앙) 박성규 목사(부전) 배광호 목사(남천) 안산이 장로(소정) 이재용 장로(부신제일) 하선규 권사(부전) 감사 2인 박성호 목사(푸른초장) 김주선 장로(호산나) 등이다.

양창부 목사 대표회장 취임“민족복음화에 힘쓰겠다” 연합회로부터 이정두 잔택중 목사가 자랑스런한국인상 수상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단(총회) 신학연구원 연합회 대표회장(양창부 목사)및임원취임감사예배가 12월10일(금) 오전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에서 개최됐다. 잔택중 목사(사무총장 평양신학교학장)사회로 시작되어 이정두 목사의 기도가 있었고 김창규 목사가 디모데후서 2:15절을 봉독하고, 복음가수 김옥희 선교사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어 전 한장총 대표회장 김신규 목사는 “분별력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선포했다. 아울러 양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2011년도 임원취임식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서 귀 경찰동료들의 영훈구원을 통해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설

것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단신학연구원 연합회로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했다. 이어 이영수 목사의 환영사를, 이준상 회장이 이정두 잔택중 목사에게 자랑스런 한국인상 수상을 전달하고 이 자리에서 이영수 목사는 대표회장 양창부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양 대표회장은 김신규 목사에게 추대패를 새 임원들에게는 축하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민순규 목사의 축사, 장회규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상임회장 신동수 목사가 광고에 이어 정윤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새 임원은 : 수석상임회장에 이영수 목사를, 육대식 류한상 이정두 장회규 신동수 김행은 목사 송원석 목사 등을 상임회장으로 유 필 권오삼 이종목 이보영 양순순 황도순 양재일 목사 등이



양창부 목사 대표회장 취임

공동회장으로, 잔택중 목사는 사무총장을, 오혜경 임인희 정윤환 류경숙 황춘례 전연화 이장득 박금선 김해숙 김현웅 오바을 김창규 목사 등이 각각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신임대표회장 양창부 목사(동원교회 원로)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선교회 회장, (사)한국사회복지협 중앙회 회장, (사회단체) 한국복지회 대표, 국제민간자격을 협회 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 총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벤엘교회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표어 :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예배안내

새벽 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1시

주일 오후예배 : 오후 3시

수요 저녁예배 : 오후 7시30 찬양, 8시 예배

금요 철야예배 : 오후 9시30분(찬양) 오후 10시(예배)

벤엘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 강정자

전도사 : 이동주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 : 이세원 집사

반주자 : 최정임, 김다혜



담임 강정자 목사

교회 전화 : (031)791-9177, h.p : 010-9838-3363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418(3,4층)

교회카페 : cafc.daum.net\hanambethel

사회복지사·전문학사 원격(사이버)교육 수강생 모집



자격증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기간 : 고졸(2년 4학기- 80학점), 대졸(1년 2학기-42학점)
등록기간 12월 30일까지 (선등록시 장학금 혜택), 특별장학금 후원

4년제 사이버대학교 신. 편입생
최대 장학금 지급함(선착순 90명 / 조기졸업가능)

신학, 사회복지학, 실용영어학, 논술지도학, 상담복지학, 생활스포츠학, 호텔외식창업경영학



원장 조정한 목사

교과부등록원격기관 국제사이버 평생교육원 ica91.co.kr
원장 조정한 017-211-9125, 1670-9001

탈퇴 공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개혁측)초대교회는 경중노회를 12월 17일부로 탈퇴함을 공고합니다.

초대교회 담임 정태운 목사 외 성도 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을 성산리 삼주타운상가 2층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메시지!"

제자교회네티축구선교단 '2010프러스리그아마최강축구대회' 우승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제자교회 '네티축구선교단'이 2010년 프러스리그아마최강축구대회에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 아마 최강을 가리는 이번 대회는 2월부터 16개 팀이 2개 조로 출전 예선 리그를 거쳐 8강을 뚫아 토너먼트로 진행해, 결승에 오른 제자교회 네티축구선교단과, F.C. YARO팀이 지난 11월 28일 인천동구장에서 70분 동안 결승전을 펼친 가운데 네티축구선교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우승을 차지한 네티축구선교단의 우승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딛고 이룰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이뤄낸 우승이었기에 더욱 값지다는 축구전문가들의 평가다.

후담을 들어보면 어깨뼈에 실금이 가 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맞

아가면서 경기에 임하는가하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아기가 열이 많이 올라 병원에 가는 중 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 무릎에 통증이 심해 인대가 파열 8강까지 뛰다가 무릎을 수술한 선수, 발목과 무릎에 물이 차서 침을 맞으며 결승까지 무릎을 발목한 선수 등, 어려움과 고통을 경기 내내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며 경기에 참가한 선수 등을 한해 네티의 시련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정삼지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뒷받침 됐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돼 힘을 모은 응원의 힘은 선수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줬다.



‘네티축구선교단’은 축구뿐만 아니라 ‘탈북자 정착프로그램’, ‘캄보디아 레인보우’, ‘인산 다문화화정 선교활동’ 등 다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교단으로 주위에 평평이 나왔다.

서윤원 감독은 “우승의 영광을 하나님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돌리며 앞으로 축구선교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네티 축구선교단은 1953년 6.25사변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미해병 애치너스 중대장으로 참전한 (전)국가보훈선교회 창립이사장이었던 故 서장석 장로에 의해 창립됐다. 서장석 장로는 본 네티 축구선교단 현 서윤원 감독의 선친이시기도 하다.

김도열 기자

(사)한기부협 전용범 목사 제42대 대표회장 취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한기부협)제42대 대표회장 전용범 목사 취임감사예배 및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2월6일 (월)오전 10시30분 기독교대한감리회 룻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정도출 목사(상임회장)사회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김조 목사(직전 대표회장)기도와 강석원 목사의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

라는 구호제창에 이어 김동준 목사가 디도서 1:7-9절을 봉독하고, 윤항기 목사(에음신학대학 총장)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어 이종만 목사(증경 대표회장)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현영훈 총장의 축도로 마치고, 이어 헌전 2부 이.취임식에는 최영식 목사의 사회로 김조 목사가 이임사를, 대표회장 전용범 목사가 직



전회장 김조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강종일 목사, 최문자 목사, 전용재 목사, 등이 축사를 김수용 목사, 장대영 목사, 심원보 목사, 격려사를, 각 교단 및 단체에서 대표회장 전용범 목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하고, 이어 사랑의 쌀 전달식을 하고 3부 특별기도회는 이상현 목사 사회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정봉기 목사가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를 위하여, 정원영 목사 세계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박복우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중주 목사가 부흥사들의 영적각성과 부흥운동을 위하여 기도했다. 4부 친교의 시간에는 엄정목 목사의 새출발을 위한 기도와 전희종 목사의 오찬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어 대표회장 전용범 목사는 실무회장, 실무위원들을 소개하고, 상임회장 정도출 목사가 대표

회장 전 목사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으며, 강종일 목사, 최문자 목사, 전용재 목사, 등이 축사를 김수용 목사, 장대영 목사, 심원보 목사, 격려사를, 각 교단 및 단체에서 대표회장 전용범 목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하고, 이어 사랑의 쌀 전달식을 하고 3부 특별기도회는 이상현 목사 사회로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정봉기 목사가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를 위하여, 정원영 목사 세계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박복우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중주 목사가 부흥사들의 영적각성과 부흥운동을 위하여 기도했다. 4부 친교의 시간에는 엄정목 목사의 새출발을 위한 기도와 전희종 목사의 오찬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서울구로교경협 2010 추수감사예배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나라고 행복한 사람이라

서울구로경찰서 교회와 경찰협의회(이하-경목회) 회장 김길진 목사는 지난달 28일 (주일)오후3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남현교회(담임 이준복 목사)에서 2010년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추수감사예배는 진행위원장 박재욱 목사(직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서기이종승 목사(여명교회)가 기도를, 구로경찰서신우회장 최성규 집사가 성경봉독을, 남현교회성가대의 찬양과 남현교회 색소폰선교단의 색소폰연주가 있었다.

이어 교경회장 김길진 목사(구로동감리교회)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진정한 감사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했고, 자신이 많이 가졌느냐 조금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나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위원장 / 경목실장 김수정 목사(경찰서교회)의 사회로 이.취임식에서 교경협의회 고문 이봉행 서장(구로경찰서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고문 정영근 목사(성문교회)가 축사를, 수석부회장 이준복 목사(남현교회)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전철목사가 헌금기도를, 폴라엘중창단(구로경찰서 신우회)의 찬양이 있는 후 지도위원 서재석 목사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부서기 장창윤 목사(열린찬양교회)는 구로구 발전과 교회복음화를 위하여, 협동총무 박영민 목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국장 최동욱 권사는 세계 경

제와 평화를 위하여, 부총무 남경희 목사는 구로경찰서 서장과 과장들, 전직원을 위하여, 신우회지도위원 유재광 권사는 경목 및 교경협의 회와 신우회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했다.

아울러 구로경찰서경목실장 김수정 목사는 2010년 추수감사예배를 남현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내외빈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인사를 했다. 아울러 내빈소개를, 경무과장 김용민 경정은 경찰서 관내 지구대장 등의 소개가 있었으며, 경목회장 김길진 목사(구로동감리교회) 축도로 마쳤다.

한소망교회(김성일 목사)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드려



한소망교회 김성일 목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못 영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겠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

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소망교회(담임 김성일 목사)는 지난달 27일 (토) 오후3시경기도 광명시 소하 2동 소재 지하층 지상6층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성일 담임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박종은 목사(한서노회 서기)가 기도를, 유종필 목사(제1시찰장)가 이사가 58:11-12절을 봉독한 후 본교의 살림살이개

이어 정학봉 목사(W.I.총장)는 “무너진 대를 보수하자”라는 제의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뉴월드 선교 중창단의 봉헌송에 이어 노병란 목사(한남 노회장)가 헌금

기도를, 한상순 장로가 건축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담임 김성일 목사는 (설계, 시공사, 교회건축위원장) 등에게 공로

패를 증정했다. 이어 최순영 목사(증경 부총회장) 이용안 목사(증경 노회장)이 축사를, 송정운(성신여대 음대교수)가 축가를, 뉴월드 워십선교단의 축하 위임이 있었다. 이어 김성일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최복수 원로 목사(증경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담임 김성일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한소망교회당 신축 입당감사예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한 이들과 특히 건축위원회와 디딤건축사무소의 설계와 (주)경복건설의 좋은 시공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못 영혼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피종진 목사 12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pijongjin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T: (02) 3411-9191

F: (02) 401-7770

F: (02) 3411-9111

3(일) 오전 4(토) 오후 8(수) 오전 9(목) 오전 9(목) 오후 10(일) 오전 11(토) 오후 11(토) 저녁 10(일) ~ 15(수) 16(목) 오전 16(목) 오후 17(일) 저녁 20(일) 오전 20(일) ~ 23(목) 23(목) ~ 25(토) 성탄절 행사 27(일) ~ 30(목) 31(일) 저녁

국민일보 이사회 구미 소망교회(이성순 목사) ☎051481-1841 화성 명성교회(박영순 목사) ☎031972-8975 서울시 경원교회(이성순 목사) ☎02813-0880 세계복음화협의회 국민대상 시상식(국민일보 후원) 서울 소망교회(이성순 목사) ☎0253-9778 서울 경서교회(이성순 목사) ☎01672-9880 부산 JTV 선교선도 위성방송회 ☎010-654-1011 서울 연변교회(김희자 목사) ☎010-4970-0075 세계복음화협의회 부흥사(이성순 목사) ☎010-2425-8849 인연 주안교회(김재남 목사) ☎01672-9880 태안 파도교회(김종남 목사) ☎01408-0993 서울 성민중앙교회(조영우 목사) ☎010-401-8874 서울 한미중앙교회(임미영 목사) ☎010-401-8874 한영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임정 교목사 목사) 동인 회령교회(윤호근 목사) ☎031281-9992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정기총회 장소: 남서울중앙교회 ☎023411-9191

20(일) ~ 23(목) 서울 수정교회(이성진 목사) ☎02941-1746 23(목) ~ 25(토) 남서울중앙교회(이성진 목사, 여전근 목사) 성탄절 행사 ☎023411-9191

27(일) ~ 30(목) 대구 성서교회(권영일 목사, 여전근 목사) 남서울중앙교회(이성진 목사, 여전근 목사) 송구영신총회(대성회) ☎023411-9191

“한국교회가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응원합니다”



대표 회장 정삼지 목사 (전)한기총스포츠위원장



실무 회장 박철승 목사 (전)국가대표사격감독



사무 총장 이주태 장로 (현)전기총스포츠위원장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The Christion Council Sports of Korea

서울시 중로구 영자동 186-56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1109호 Tel:(02)2213-4258 Fax:(02)2213-4259

선교·화합·나눔
www.ccsk.or.kr



스포츠선교사 최순호 안수집사 강원FC감독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이런 아버지가 되라

성경: 창세기 49장1절-22절 찬송가 506장
아픔은 죽음 앞에서 열두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책망의 형태를 띤 축복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은 죽음 앞에서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닌 책망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은 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 50장1절-26절 찬송가 41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아픔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픔의 죽음으로 족장시대는 끝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모습을 보았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연약하고 부족할 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고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3) 이런 아버지가 되라

성경: 창세기 49장1절-22절 찬송가 506장
아픔은 죽음 앞에서 열두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책망의 형태를 띤 축복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은 죽음 앞에서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닌 책망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은 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 구원 받았다면....

성경: 에베소서 1장1절-14절 찬송가 46장
구원의 서정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장의 서두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찬양합니다.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는 구원사역을 이루셨으며 성령은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도리는 전 인류 특히 성도가 될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와 같은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가정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5)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여

성경: 에베소서 2장1절-22절 찬송가 355장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생활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며 구원 이후의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써 가능했습니다. 새 생명의 소유자인 성도는 새로운 영적신분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며 주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이름인 성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6) 품을 수 있다면

성경: 에베소서 1장15절-22절 찬송가 506장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지 알기 원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대해 알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데 더욱 힘쓰는 거룩한 소망을 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7) 믿음의 눈을 들면(1)

성경: 신명기 1장24절-32절 찬송가 344장
이스라엘은 가나인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원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8) 너무하네

성경: 민수기 20장1절-2절 찬송가 539장
오늘 본문을 보면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론의 동생이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미리암이 죽었으니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이 없으므로 위로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위로보다 비판과 비난으로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9) 없고 없고 없고

성경: 민수기 20장3절-5절 찬송가 446장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또한 해서는 안될 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뻔 하였도다” 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을 보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불평합니다. 즉 없는 것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들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비록 없을 지라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0) 무엇이 보이는가

성경: 민수기 20장3절-5절 찬송가 344장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며 없는 것만 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눈

을 가진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1) 현실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 민수기 20장6절-9절 찬송가 484장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었도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은 현실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현실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2) 조금만 더

성경: 민수기 20장10절-13절(1) 찬송가 364장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음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나 미리암도 죽어 아직 슬픔도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여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참지 못하고 10절을 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분노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에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3) 사람은 해답이 아니다.

성경: 민수기 20장10절-13절(2) 찬송가 342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내리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사람은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라질 꽃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4)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 민수기 20장22절-29절 찬송가 399장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이 그 후임자로 선택 되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 형제 가운데에서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었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고 때를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지스티임즈

| www.JTNTV.kr JTN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new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02) 팩스: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 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성탄과새해



커버넌트 성경대학

(Covenant Bible College) (신.편입생모집)

역사와 목적

본 커버넌트성경대학은 목회자성경대학원으로 출발하여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22,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성경대학원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각 지역교회와 공동체 또는 세계 각 나라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운동을 확장시키고자 “커버넌트성경대학”으로 재도약 합니다. 본 커버넌트성경대학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와 자유와 평화에 필요한 실천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며, 국가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나라와 교회사역에 미래지향적인 유능한 말씀 신학자, 목회자 양성을 위해 순수 성경만을 가르친다는 것이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커버넌트성경대학의 특징

1. 주 1회(90분씩 3-4강좌) 2년 8학기제로 수업을 진행하며 성경 66권을 빠짐없이 공부합니다.
2. 성경에 관한 25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한 경한수 박사의 책 중 180권을 시스템화하여 역사와 함께 ‘통전적’으로 연구(각권 : 구조분석 / 신학영성세미나 / 문답성경강독 / 장별 · 단락별 / 절별 영성설교) 주재하며 철저한 성경전권을 연구합니다.
3. 커버넌트성경대학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인생관, 신학방향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4. 커버넌트성경대학은 세계평화성경공의회 기관으로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법적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 성경 중심 신학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교회와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목회자, 교수,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모집대상

학 부: 성경66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 (2년 8학기 과정 / 방학없이 1년4학기)
“필리핀의 트리니티대학”(Trinity University) B.A.(학사학위) 교류과정포함,

연구원부: 성경(구조분석 / 신학영성세미나 / 문답성경강독 / 장별 · 단락별 / 절별 영성설교) 주재하며 철저한 성경전권을 연구하며 강단에서 선포하고자하는 목회자.
“Jerusalem Biblical College”와 “Bethlehem Bible College”에서 M.A와 Th.M, M.Div, (석사학위) 교류과정포함.

특 전: 1. 농어촌교회 및 작은교회 목회자부부는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2. 성경66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연구하여 전도자, 선교사로 사역을 원하시는 분도 장학 혜택
3.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도 장학 혜택

수업일시:

수업장소: 대전 커버넌트성경대학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134-105 (한 사랑 교회)
안내전화 : 042-526-6378 / 010-2872-4357, E-mail : ywp63@hanmail.net



총장 김한수 박사

· 연세대 피리대학 졸업(B.A.)
· 장로회 신학대학원 입(M.Div.)
· 독일 괴팅겐대학(Th.M.)
· 독일 빌레펠트대학(Th.D.)
· 신학대학 교수 및 출강15년
· 현 -제자 교회 담임목사
-목회자 성경대학원 원장
-Jerusalem Biblical Academy 총장
-Western Covenant University총장
-Covenant Bible College 원장



박경무 목사
대전 커버넌트성경대학장

· 서울신학대학(B.A.)
· 한남대학교 신학박사 석사(M.A.)
· Jerusalem Biblical Academy(Th.D.)
· 목회자성경대학원졸업
· 현 -한사랑교회 원로목사
-대전신학 교수
-퓨리탄신학대학 교수
-민족목회신학연구원교수
-경중형 입원



하남 베엘교회(강정자목사) 노인들과 아이들을 내 몸처럼 평일은 식당, 주일은 교회로,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강 목사,

대 한에 수 교장로회 베 엘교회 담임 강정자 목 사, 주제는 “오늘도 사 랑하는 주님과 함께”이며,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교회부설을 신설 지역아 동센터와 어르신 컴퓨터 운영하 고 있는 강정자 목사, 그는 이 세 상에서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위해 공부방을 시 설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의 나 래를 펴 나가는 학습지도의 공간 과 재능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 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곳, 지역사회 의 복지증진과 가족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인식전 환을 이루는 것이 베엘교회의 지 역아동센터의 목적이 있다고 말 한다.

신장베엘교회(강정자 목사)는 2004년 7월 25일 식당에서 개척예 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주일예배와 삼일예배, 금요철야 등 새벽기 도화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기도 를 드리는 가운데 2006년 8월 15 일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소재 3-4층을 교회로 임대해 이전예배를 드렸다.

강 목사는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 아들이 급성팽창으로 대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다급해서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아들을 살려주시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아들이 다 낫을 것이란 확신 이 들었으며, 하나님은 아들을 살 려 주셨다는 간증을 한다. 이를 계기로 신학을 하고, 전도사 때 식당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해서 2006년 목사임직을 받았다.

식당에서 드러진 예배가 개척 교회의 시작이었다.

사실 강정자 목사의 가족은 불 론 강 목사를 아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신학교를 다 니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강 목사에게 저들을 불러주셨 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울러 부족한 자신을 도와 신학 교 교수들이 찾아와 돌아가면서 설교를 맡아주었다고 한다.

그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소 에 기도하고 있던 복지사역을 하 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난달 사랑의 봉사 노인섬김행사를 가 져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 위십과 율동, 찬양으로 기쁘고 즐 기운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은 곧 자신의 행복이라며, 매월 생일잔 치상을 차려드린다.

강 목사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 속에 내가 행복해 지는 것,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 해 이 사역에 힘쓰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을 대접해 드린다는 것 보다 생일잔치를 해 드리는 마음 에서 상을 차리고 찬양과 위십을 동 등으로 즐겁게 해 드린다고 말 한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보 통 식사대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좀 더 편안하게 모시는 차원 에서 생일잔치상을 마련해 대접 하고 있다면서 어르신 컴퓨터사역의 취지를 말한다.

강정자 목사는 또한 매월 셋째 주 어르신 컴퓨터 목거노인 컴퓨터, 무료 급식(지역 어르신 섬김의 날 을 정해)으로 봉사하고 있다. 특 별히 고령사회에 살고 있는 이때 2018년이 되면 최고령 사회로 진 입하게 되는데, 국가에서도 저출 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많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행 에 있어서 회의적인 부분도 배제 할 수 없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 인 아이들과 노인들에 대한 현실 적인 정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 고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정자 목사는 지난 8년 을 한결같이 복지일환으로 섬김 의 날 무료급식에 참여하지 못하 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 여 손수 만든 사랑의 전갱과 만두 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 위로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으며, 갈 곳 없고 거처가 없는 목거노인 6컷 분을 모시고 잠자리를 마련해 드 리고 있다.

강 목사가 한번은 어르신들에

게 보양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닭 200여 마리를 구입 다음날 새벽 4 시30분까지 밥집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보양식 재료를 넣어 삶아내 어 어르신들이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보람을 느껴며 흐뭇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 목사는 올 겨울 어르신들이 추워서 떨 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이 기도의 제목이라면서 눈시를 을 적산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3층 교회와 4층 교육관, 등 각 40여 평 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식사를 대 접하는 행사에는 때론 2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공 간이 너무 좁아서 늘 죄송하고 마 음이 아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 목사는 매월 셋째 주 오전10부터 오후 1시까지 생일잔치상을 마련 하고 많은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다.

부설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 아이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강 목사

강 목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도 너무도 벅차고 힘든 일인데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오후 1 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방과 후 아 동복지 서비스로 급식사업을 실 시하여 방임, 방치되는 것을 예방 하고 차별화된 Child Care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활 동을 위한 공간과 집단활동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아동 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강 목사는 또 아 동의 심리, 사회력 문제(학교부적 응, 대인관계 대처능력 결여, 사 회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개별, 집단지도 및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 동의 인권과 지역아동의 문화적 랑을 향상시키려는데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강 목사는 주위에 있는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 저소득모자가정, 기타 빈곤 가정 등의 불우이웃과, 지역사회 주민, 공직자 및 기업체, 종교단 체, 사회단체, 교육·금융기관 등

사회 가계 인사를 연결하여 물질 적,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불우 이웃들의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돕는 사랑 실천 사업으로 교복지 원사업, 장학금지원사업 등으로 결연사업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베엘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가정 형편상 식사를 부모가 차려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방에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공부도 함 게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는 강 목 사, 때로는 이 일을 위하여 목사 와 교역자 등이 아르바이트에 나 서 돈을 모아 교회 안에 불우시설 을 운영하고 있다.

강 목사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 하기를 추운 겨울에 난방이 들어 오지 않아 노인들의 잠자리가 춥 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떨고 있 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섬기려는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 은 되지 않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강정자 목사는 지난해 5월 가정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외 지역사회와 기 관으로부터 상을 수상한바가 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 엘 지역아동센터 및 어르신컴터 를 운영하고 있는 강 목사는 제3 회 대한민국 나눔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5월에도 가정의 날 보건복지 장관상 특별상을 수 상했다. 이 외에도 기관과 지역으 로부터 상을 수상한바 있다.

개척교회 시작부터 함께 베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주 전도 사(39)는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 의 공부방과 어르신들의 컴퓨터 운 영을 위해서 야간과 오전에 아르 바이트를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 고, 아이들의 학습발달을 체크하 면서 급식준비를 도와 봉사하고 있다.

도움을 주실분 : 031)791-9177, H.P 010)9838-3363 베엘교회까페 : cafe.daum.net\hanambelhof



하남베엘교회 독고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렸다.

대기협 창립2돌 맞아 3개 지회 연합송년회 가져

대한기독교사친가협회(이하-대기 협)은 지난 12월6일 저녁5시 안양 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대광교회 교육관 (엄영수 목사)에서 본 협 회 서울, 경기, 인천지회 등 3개 지회가 연합한 송년회 모임에서 1부 예배를 드렸으며, 2부 대기협 설립 2돌을 기념하는 다과회를 갖고 도도/이상중 목사를 강사로 풍경사진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경기지회장 장학규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인 천지회장 천현옥 목사의 기도예 이어 협회부회장 이진호 목사는 요한복음 13:34-35절을 인용“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설교에 나 섰으며, 협회고문 엄영수 목사 축 도로 마쳤다.

이날 부회장 이진호 목사는 우 리 사진가 협회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한다면서 “사랑은 예수님



대기협 송년회 모임을 갖고 기념촬영

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정신”이라 고 했다. 사랑이 없는 조직, 사랑 이 없는 모임은 오래가지 못한다 고 말하고, 우리의 모임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주 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기협의 모임을 통해 유종의미를 갖자고 말했다. 2부에서 본 협회 회장 도도/이 상중 목사를 강사로 사진에 대한 특강에서 풍경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

축 성탄과새해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선교비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 광고 및 문서선교비로 유지되는 본보와 인터넷 JTNTV방송입니다. (WWW.JTNTV.KR) -

「지저스타임즈(신문) 독자 제위께」

본보를 아껴주시고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보는 구독료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비 후원으로 문서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지사장들과 기자들,직원들은 독자 여러분을 존경하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두 뿌리를 꿰고 기도하며 발행하는 본지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보는 독자님들의 문서선교비 후원과 광고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본보는 농어촌에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드는 언론으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후 2010년 12월 19일

JTNTV 방송 지저스타임즈

방행인 정기남 목사 배상

■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하는 교계언론 지저스타임즈입니다.

은행 계좌번호

하나은행 670-110405-00108
농협 455030-56-005509
정기남

지저스타임즈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140-31

TEL(02)741-0031(팩스 겸용) 070-8230-0032



전국 16개 지사와 해외 12나라 지사가 매일 매일 기도하며 만드는 신문과 JTNTV방송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로 후원을, 문서선교지로 후원을...



강원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00-11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hp 011-364-4280	경기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이경찬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80-950) 충북 충주시 교현1동 484-15 hp 010-7660-9091	경성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2-871)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30-100 hp 010-9492-1770	경충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3-859)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0 hp 010-3240-4713	경인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10-8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9 원스틴 301호 hp 011-2972-7859
강동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지동 65-2수내빌딩 5층 hp 010-3136-0697	경천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김중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43-8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34-11 hp 011-9991-6288	남부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김성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30-350) 전남목포시 산정3동 149-1 hp 019-633-1710	경향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장광수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13-758)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평리 유승안빌딩 212동 507호 hp 010-4227-1170	대한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대림프라자(교외)17층 hp 010-4436-7060
동서울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심순범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05-808)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80-11 hp 010-5674-7751	서울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22-878)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hp 010-4270-3462	수도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22-8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hp 010-4166-2307	수원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30-85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36안양빌라7층201호 hp 010-4282-0460	충부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박용학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76-873) 충북 보은군 산외면 장갑2리 hp 011-9805-4461
한서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이중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50-762) 경기도 평택시 함정동 742-17 hp 010-2740-1571	한성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73-873) 전북 군산시 문화동 549-21 hp 010-3944-9491	중앙노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노회장 정기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38-819)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tel 070-8230-0032, 34, H.P 011-5468-6574	성암교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담임 신언창 목사 외 교우 일동 (585-851) 전남 고창군 성암면 임지리 16-2 Tel 063)564-4001, hp 010-8602-3009	은광교회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담임 이원석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교본 (130-874)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52번지 연대상가 3층 301호 ☎02)245-8767, 8766 hp 017-717-4400
선일장로교회 전북지사 담임 박주성 목사 본지 전북전주 지사장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8-11 ☎063)241-9182, 242-0134 hp 011-659-1016	생명길교회 경북대구지사 담임 이상락 목사 본지 경북대구지사장 (700-210) 대구시 중구 아서동 28-1 (아미교회빌딩 20층) ☎053)628-3689 hp 010-8616-0889	한사랑교회 중부지사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302-161) 대전시 서구 도마동 129-16 ☎042)321-7340 hp 010-2872-4357	임마누엘교회 중부지사 담임 양승섭 목사 중부지사 상임총무 (302-819) 대전시 서구 도마동 51-28 ☎042)532-3622 019-436-3622	예장지구촌교회 담임 이홍규 목사 웨신 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150-054)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4동 322-33 ☎02)845-3376, 848-3376 hp 017-711-3376

축성탄 대 한에 수교 장 로 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전도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웨신총회 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삼십구 많이 쌓은 교회
2. 순례와 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수교하는 교회

2010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중생 - 감절의 선교

담임목사 : 이재갑
장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김영주, 오정순, 김성임, 박에스더

(우) 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 한에 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JTN방송 부사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지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선교교회

부천대학, 선도초등학교, 관동산 아파트, 사당마을 아파트, 복사골사거리, 복사골문화센터, 승내역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연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 김봉주

예·배·시·간		찾아오시는 길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9:20
수요예배	오후 7:30	WIVA경제교육	오후 1:00(토)
일파과정	오후6(주일)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디사이러스	오후 7:30(화)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46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 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CTS목자교회는 ‘은퇴 목회자의 행복한 쉼터’

은퇴 목사와 무임 목사 335명을 섬기는 CTS방송국 박천일 담임목사

섬김과 나눔의 CTS방송국(감경철 회장)에서 사목을 맡아 목자교회를 섬겨온 담임 박천일 목사, 한국 교회의 은퇴 목회자 335명을 섬기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자교회로 성장했다. 단돈 1천원이 없어 헌금도 못하는 은퇴 목사가 있을 때는 가슴이 아팠다며 눈시울을 적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에 택시기사 중 목회자가 2000명 넘어, 연간 신학생 1만

명 졸업 4000명은 갈 곳 없어 현재 전국에 무임목사 40000명, 한국 교회가 기도할 문제... 은퇴 목회자, 무임 목회자를 섬기겠다는 뜻에서 목자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은퇴 목회자들의 행복한 쉼터 섬김과 나눔의 사역으로 목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박천일 목사의 사역에 대해 들어 본다. <편집부>



목자교회 주일예배에 특송을 부른 성도들

CTS 방송은 섬김과 나눔의 방송이다. 순수 복음방송을 지향하고 있고, CTS목자교회가 그러한 면에서 2008년 3월 9일 430여 명의 은퇴 목회자와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현 CTS기독교방송사 감경철 회장의 은퇴 목회사 섬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목자교회가 이루어졌다. 처음 재직 인원은 30명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355명의 재직 인원으로, 목회자들이 모인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목자교회는 은퇴 목회자와 무임 목회자, 또는 봉사자들로 함께 출석하고 있다. 매 주일 출석 인원은 180~200명 인파이다. 재직 인원엔 비해 출석 인원이 적은 이유는 2가지이다. 다른 곳의 사역이 있거나 목자교회에 계시다가 연계가 되어 사역지가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은퇴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결연을 맺어 주고 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은퇴 목회자들이 국가에서 받는 국민연금 이 있다. 또한 교단에서 목회자의 최후를 위해서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일부 있다. 하지만 목자교회에 등록된 목사들은 연금이 없다. 85%가 3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초대 한국 교회의 문화는 목회자는 통장이 없어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려야 했고, 돈 없이 성미로만 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은퇴를 하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은퇴 목회자 중에는 국가에서 최저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상급은 많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추한 환경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목자교회는 은퇴 목회자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한 달에 한



박천일 담임목사

번씩 1인 당 성미 5kg을 드리고 있다. 연말에 성미 약 5kg정도 드리는 일엔 한국 교회가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또한 기도협연으로 양 부모를 맺어주는 일과, 성도들이 은퇴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드려 그 가족이나 현실 사정을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해 드리고, 또는 성도의 가정에서는 목사님에게 형편에 따라 적든지 많든지, 생활비까지는 아니지만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결연을 맺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현재 여섯 분의 목사님이 결연을 맺었다. 이 운동은 확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은 은퇴목사를 섬기는 기쁨도 있고, 또 기도를 해 줌으로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로서 좋은 결연을 맺고 있다.

사실 월드비전이나 국제기아대책 등에서는 고아와 성도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고아가 아닐지라도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도 맺어져 있지만, 사실 은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에 그러한 일이 별로 없다.

CTS목자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했다. 교단마다 은목회가 있다. 30명~50여 명이 모인다. CTS방송국 목자교회는 현재 335명이 등록되어 있다. 은퇴 목사 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한다. 영적인 좋은 것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도 영적으로 맺어지는 좋은 것이라고 본다.

은퇴 목사자들 중에는 멀리 천안, 평택, 안성에서 많이 참석하고 동두천, 의정부, 인천, 춘천 등 전철이 닿는 곳이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목자교회를 찾는 이유가 있다면 은퇴한 원로 목사들의 공통점은 은퇴를 한 후 본교회이든 타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타 교회를 출석하면 등록을 권유 받게 되고, 게다가 은퇴 목사로 알려지면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사실 은퇴 목사가 교회에 나오면 설교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고 설교를 하면 서도 원로 목사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다. 원로 목사가 한두 번쯤 설교해 주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한다.

목자교회에 출석하는 은퇴목사 335명 중에는 원로목사 대우를 받는 분은 불과 7명이다. 한국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 못된 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예컨대 공무원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도 전혀 상관없이 연수에 비례해 연금이 나온다. 우리 한국에서는 감리교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감리교는 목사가 되고 사역지를 옮겨 다녀도 연안을 다 계산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장로교단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해야만 연금이 보장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 목사 본인도 46년을 목회를 해 왔지만 원로 목사가 못됐다고 한다. 20년 목회를 한 목회자 보다 배를 사역에 힘써 왔지만 전혀 혜택이 없다. 은퇴 목사들의 고충은 복지 대책이다. CTS방송에서는 은퇴 목사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드린다. 국내 성지순례도 다녀왔다. 금년에도 일본 성지 순례를 80명이 다녀왔다.

은퇴 목사 중에는 단돈 천원의 헌금이 없어서 예배에 부담을 느끼는 일도 있다. 그래서 단돈 1천원이 없어서 헌금함을 두는 말에 정말 담임 목회자로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한다.

지난 2월에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음역 설을 맞아 목사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다과를 대접해 드리고 1인당 세배돈 5만원씩을 드렸는데 박천일 목사는 원로 목사들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어지길 원한다고 했다.

목자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은퇴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데 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무임목사가 4만 명이다. 서울 택시기사 중 2000명이 무임목사로 밝혀졌다. 대략 통계이다.

저의 CTS목자교회의 시스템은 담임목사와 협동목사, 협동전도사, 협동장로로 운영된다. 덧붙여 음악목사와 문화목사, 선교목사가 각각 섬고 주고 있다. 일반 교회의 당회 대신, 기획위원의 직책을 만들어 현재 7명의 기획위원이 있다. 기획위원은 교단별로 한 명씩 선출하며 현재는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으로 정해지고 있다.

또한 목자교회는 은퇴 목회사 섬김사역에 주력하면서 첫째로 주일마다 목회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두 번째는 교회 출석 10번째가 되면 목자교회의 협동목사로 명함을 만들어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협동목사이다.

또한 목자교회는 은퇴 목회자의 재사역을 돕기 위해 교회 또는 일반 가정과 의 '연계사역'에 주력한다. 첫째는 국내 목회자 파견사역으로, 미지림교회에 설교자가 없을 때 우리 교회 목회자 분들이 가서 설교를 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교회에서 사역 요청이 들어와 파송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해외 단기 파견사역이다. 선교사분들 중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만, 현지상황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이 단기 파견을 이끌어 주고 있다.

목자교회의 비전
목자교회의 첫째 비전은 금년 출석 인원 목표 200명이다. 왜냐하면 재직 인원 500여명 정도가 모이면 예배의 처소를 따로 마련할 계획도 있기 때문이다. 목자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CTS 기독교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지덕분이다. 하지만 예배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못해 예배 후의 목회자분들의 친교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예배의 처소 마련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은 선교관 건립이다. 놀랍게도 은퇴 목회자의 80%는 월 30만원 이하의 재정으로 생활한다. 갈 곳이 없는 분도 허다하다. 그래서 은퇴 목회자들의 쉼터인 선교관을 건립하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세 번째 비전은 목사 성가대의 디아스포라 순회공연이다. 전년도에 목사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전국을 넘어 해외 디아스포라를 순회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에 무임 목회자가 40000명이다. 그 중에 매년 6%가 별세로, 병으로, 은퇴로 인하여 6000명이 목회를 그만둔다. 또한 6000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이어간다. 문제는 1년에 1만 명의 목회자가 새롭게 탄생한다. 4000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남아돌아간다. 이들 중에는 파라처치(Para-Church)의 개념을 적용해 공장이나 청소용역원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사역을 한다. 택시기사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은퇴 목회자 또는 무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첫 번째는 목회 노후유를 나누는 일이다. 주로 후배들을 상담하며 자신의 목회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은 기도다.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으며, 특별히 복한의 재건되지 않은 교회를 선정해 지속적인 기도사역을 펼치는 일이 주된 사역이다. 파라처치(Para-Church)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은 후학을 위해 강단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교회에서 은퇴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는 추세다. 이에 한국 교회에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되도록 설교강단에 초청하는 일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성미 후원에 대한 바람이다. 성미 지급은 매 년 이루어져야 하기에 언제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다.

성탄의 축복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박천일 목사

신년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기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전하러 오셨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축복을 많이 받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또한 아기 예수의 축복을 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새해란 365일 1년으로 했을 때 인간들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계산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시간적인 것 보다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란 말이 있듯이 크로노스는 막연한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결정적

인 순간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란 것은 어제 뜨는 해가 오늘도 똑같이 뜨지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2011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는 첫해이기도 하고, 또한 방송국에서는 디지털시대로 넘어가는데 방송뿐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도 새로운 과학의 세계가 열린다고 본다. 또한 2011년을 갖는 의미를 덧붙인다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이제 한국교회가 원숙한 교회,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데, 이제 우리 한국이 첫 번째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강도사 고시 시행공고

2011년도 강도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고시일시 : 주후 2011년 2월 24일(목) 오전 10시
- 고시장소 : 상암제일교회(이동우 목사 시무)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13 교회:02-309-8291,HP:010-8291-0032
- 고시과목
① 조직신학 : ②교회사 : ③교회헌법 :
④논문: 본인의 목회관 (A4 용지 20매 이상)
⑤설교: 설교문 제출 (약 10분정도의 분량) ⑥면접 :
•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나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는 필기고사(조직신학, 교회사, 교회 헌법) 면제함

- 고시료 : 300,000원
- 접수기간 : 주후2011년 2월 14일 월요일 오후5시까지
• 서류 제출시 논문, 설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 총회본부(사무실)
주소 / 150-8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 02-835-2606~7 FAX 02 - 835 - 2608

- 응시자격 : 웨스트 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실과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 835 - 2607 E-Mail ok@21.kr 총회홈페이지 http://ws21.kr
총무 : 신언창 목사 010 - 8602 - 3009
- 강도사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후 2010년 12월 9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총 회 장 성 흥 경 목사

고시부장 이 동 우 목사

